

농축산물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 확정 농림부, 계획물량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농림부는 저율관세 시장접근 물량(CMA/MMA)을 운영하고 있는 68개 품목군중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원료용 농산물로서 저율관세 물량확대가 필요한 19개 품목군에 대하여 저율관세 수입관세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저율관세물량을 확대키로한 품목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능가가 필요로 하는 종돈, 종계, 사료용옥수수, 대두 등 농업용 원자재와 가공산업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필요한 가공원료용 농산물로서 수매·국내산 우선사용 등의 생산능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품목들이며 생산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에 필요한 최소물량을 확대

키로 결정하였다.

이들 품목중 옥수수, 대두 등 사료곡물은 대부분의 국내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들로서 축산물 수입개방과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부담경감을 위해 저율관세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가공용 원료농산물은 국산원료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수입원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완제품 수입의 증가로 관련 가공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이다.

농림부는 확대된 저율관세물량이 수입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계획량의 범위안에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수입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을 거치면서 세척과 가열을 통하여 제거될 수 있으므로 조리과정중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의 위생관리가 소홀하고 이를 구입·조리하는 소비자가 위생관리에 부주의 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닭고기에 대한 미생물 오염 등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97 한국양계박람회 순조롭게 진행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한국양계박람회(대회장 최준구)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한국종합전시장 본관1층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4월 11일 현재 97개 업체에서 321개 부스를 신청하였다.

전시행사 이외에도 사전공모행사로 “제3회 ‘병아리 장학금’ 글짓기대회” 및 “제7회 달걀 닭고기 우수성 홍보광고디자인 현상공모”를 실시하며 접수기간은 3월 24일~4월 19일과 5월 21일~24일이다.

이외에도 사전홍보행사로 오는 4월말부터 6월 초순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시민회관 및 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달걀 닭고기 요리강습 및 시식회”를 15곳에서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인원이 '97한국양계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동안 양계축협관을 운영키로 하였는데 전국 8개 양계축협(서울경기,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홍성, 봉천, 충북)이 공동관(전국양계축협관)을 설치하여 조합현황판 등 관련 홍보물을 전시키로 하였다.

닭고기 관련 위생관리 실태조사 예정

식품의약부안전본부는 농림부에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 의한 닭고기의 검사강화 등 도계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2월 소비자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전중 “닭고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정보(『Which』 '96.10)에 따르면 절단하여 부위별로 판매되거나 절단하지 않고 원형대로 판매되는 닭고기 90개 제품을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90개 제품중 32개 제품이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고 한다.

육질의 상처, 질병의 유무, 장내분비물 및 분뇨에 의한 오염, 혈액의 불완전한 제거(잔류한 혈액은 박테리아의 번식 및 이동을 가능케 함), 깃털의 잔류유무, 내장의 불완전한 제거, 껍질의 감염 등을 살펴본 결과 몇몇 제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미생물의 경우 시료의 절반정도가 Campylobacteria 또는 Salmonella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인한 오염은 대부분 조리과

변이형 닭전염성기관지염 예방 가능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양계농가에 생산성 저하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변이형 닭전염성기관지염(IB)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독 오일백신 개발을 완료,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생산핵심기술을 전수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석 계역과장에 따르면 국내 분리 변이형 IB바이러스(IBV)를 이용한 사독오일백신의 개발, 보급에 따른 국내 산란계군의 생산성에 있어 중계의 경우 80%이상의 산란율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일반 산란계의 경우 90%이상의 산란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과장은 또 수입백신으로는 국내 유행 변이형 IB의 예방이 어렵다고 전제, 기존 사독오일백신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에서 20%대로 낮아져 수입 대체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의과학연구소는 변이형 IB 방제를 위한 백신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IBV 국내분리주들의 유형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변이형 IBV를 포함하여 국내유행 변이형 IBV에 광범위한 면역원성을 보이는 IBV 국내 분리주를 선발, 국내 유행 변이형 IBV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분리 변이형 IBV를 이용한 한국형 IB사독오일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과학연구소는 개발된 IB 사독오일백신을 산업화 시키기 위해 '95~'96과학기술처 주관 중소기업무상양허 제4차 사업을 통해 국내 백신제조업체 3개사에 제조기술 등을 전수하고 시험제조백신의 야외 농장적용시험 등을 실시, 변이형 IB 사독오일백신의 효능 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양계장에서의 IB에 대한 상황은 어린병아리의 경우 호흡기증세를 유발하고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와 난질저하 등을 동반하는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다.

현재 국내에는 최소한 5가지 혈청형 이상의 IBV가 유행하고 있으며 다른 혈청형 또는 변이형간의 교차면역원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H120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도 변이형 IB 발생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요 질병모니터링 사업에서도 국내종계장에 IB가 만연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한국형 IB 사독오일백신의 개발이 시급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뉴캐슬 백신접종을 저조

정부가 올 3월부터 국비를 들여 시행키로한 닭 뉴캐슬 백신접종이 일선 시·도의 이해부족과 사업추진능력부족으로 시행 후 지금까지 입찰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현상은 뉴캐슬병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전국이 이병에 오염된 상재지역임을 감안할 때 시급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선 양축가들에 따르면 3월 20일

현재 뉴캐슬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을 입찰한 곳은 충북도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닭 뉴캐슬 백신을 국비에서 지원해 의무접종키로 한 것은 오는 2000년까지 이 병을 완전 박멸하기 위한 것으로 3억마리를 사업대상으로 국비 1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가 이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의지가 일선 시·도에서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뉴캐슬 예방접종사업비 4억6천2백만원을 배정받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충남도의 경우 3월 20일 현재 백신입찰을 위한 협의회까지는 개최했지만 백신은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억5천만원으로 충남에 이어 사업비를 많이 받은 경기도의 경우 3월 20일 현재 백신을 입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백신선정을 위한 협의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시·도 관계자들은 부화장등이 분무접종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현재 농림부로부터 추천된 5개사 5개제품중 어느것을 선정해야 할지 몰라 선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닭 가금티프스·뉴캐슬병 주의보 산란율 떨어지고 폐사 지속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 가금티프스와 닭 뉴캐슬병 등 2종의 닭 전염병 발생주의보를 발표하고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파주,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전북 정읍지역 양계 농가의 닭 26만3천마리가 가금티프스에 감염돼 이중 2만1천마리가 폐사했다.

같은 기간 전북 김제 일부지역 양계장에서 2만4천마리의 닭이 뉴캐슬병에 감염돼 이중 1천5백여마리가 폐사했으며 경기 포천군과 경북 봉화지역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닭이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가금티프스나 뉴캐슬병에 감염될 경우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중지되고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므로 미리 백신을 접종하고 양계장에 외부인이나 개·고양이 등의 접근을 막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EU, '97년 브로일러 생산·수출 늘어

- 전년보다 3.4% 증가 예상 -

EU의 96년 브로일러 생산량은 소 뇌장애증(BSE)문제발생으로 수요가 증가, 전년대비 3.4%증가한 5백46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97년 생산은 쇠고기의 수요가 96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의 보조금에 의한 수출 재개로 사료가격 상승이 예상되기도 하여 96년 대비 1.3%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브로일러 수급구조는 순수 수출국의 1992년~1997년의 5년간 신장율이 생산 12.4%(61만톤)인데 비해 소비가 8.4%(38만톤)로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고 더구나 수입(EU외분)이 과거 5년간 10만톤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여력은 해마다 증가하여 EU 96년 브로일러 수출은 전년대비 5.8%증가한 78만8천톤으로 추정된다. 97년 수출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82만톤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5년간의 수출신장율은 72.2%, 수출선은 러시아를 축으로한 구소련계

국과 중동이 중심국이고, 수출국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이다.

EU의 보조금에 의한 가금수출(브로일러와 칠면조 등)은 GATT협정에 의거 96년 44만톤, 97년 41만8천톤으로 양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사료가격이 낮고 생산비도 적게 들고 수출수요도 높기 때문에 보조금없이 수출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

96년의 제3국에의 가금수출은 88만8천톤으로 예측, 그 중 비보조금이 41만5천톤으로 수출총량의 47%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국 중에서 EU국외로의 최대수출국은 프랑스이다. 96년 EU수출의 48.4%를 점하는 38만1천톤이 예상되고, 97년도 동 47.2%의 38만5천톤으로 예측된다.

프랑스의 브로일러 수출은 미국과의 경합을 피하는 특색이 있다. 대러시아의 경우는 부분육이 아니고 통닭을 주로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금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96 닭고기 수입감소 전년보다 4%나 줄어

96년 일본의 닭고기 수입은 95년에 비해 거의 4%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닭다리는 4만2천9백톤에서 4만9천16톤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단순한 비교에서 닭고기의 다른 형태의 수입은 거의 2만톤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이 1만3천7백톤에서 1만2천1백톤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이 분야에서 앞선 공급자위치는 유지할 것이며, 브라질은 5만5천2백46톤에서 6만7천2백94톤으로 증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3만3천톤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태국은 7만4천톤에서 6만톤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화인코리아 삼계탕 일본수출

육계계열화 업체가 생산한 닭고기가 대기업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계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태상사는 이달초 삼계전문회사인 화인코리아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공급받은 삼계탕 파우치 2컨테이너분(9천6백개)을 일본에 수출했다.

해태상사측은 이번에 일본에 수출된 파우치를 현지 법인을 통해 통신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슈퍼마켓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태상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해태의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정도 확보돼 있는 만큼 판매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파우치 외에도 냉동삼계탕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계 자동화 행잉시설 개발

-도계시설 발전 또한번 변혁 예상-

도계시설의 발전에 또 한번의 변혁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육계를 발걸이(Shakle)에 한 마리 한 마리 손으로 걸어주던 것을, 닭을 벨트 위에 쏟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발걸이에 걸어주는 시설이 금년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화란의 연구자 Herman Kertholt가 개발한 "ET-System"이라 명명된 이 장치는, 첫 시도에서는 78%의 닭만이 자동으로 걸렸으나 몇 년의 개선 끝에 이제는 100%의

정확율을 보이고 있다.

원리는 움직이는 바(bar) 컨베이어 위에 놓인 육계의 다리가 밑으로 빠지게 한 다음, 그 위에서 그리퍼(grippers)라 불리는 갈고리에 다리가 고정되게 한 후, 트랜스퍼 카로우셀을 지날 때 발걸이(Shakle)에 자동 이송된다.

행잉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육계의 균일도가 또 한번 강조되는 시설이다.

미국 가금산업 신장세 보일듯

-NBC, 지난해보다 6% 성장 전망-

미국 육계 협회(NBC:National Broiler Council)의 전망에 의하면 97년의 닭고기 가격은 약간 낮겠지만 육계시장은 96년 보다 6%의 증가가 예상된다.

미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97년 1월 둘째주(1. 16) 12개 도시의 평균 가격은 1,270원/kg 이고, 1월 셋째주(1. 13)에는 1,244원/kg이다.

95년 가을의 흉작에 따른 96년의 매우 높은 옥수수 가격에도 불구하고 ready-to-cook을 기준으로 96년에는 95년보다 거의 6% 증가한 1천2백만톤을 육계회사에서 생산했다.

97년에는 상품화되는 육계의 약 20%는 외국 시장으로 선적될 예정이며 주로 러시아, 동구 국가, 중국 등이 될 것이다.

ERS (Economic Research Service) 에 따르면 가금의 도·소매 가격은 현재 기록적으로 높으며 1996년도의 육계 생산은 5~6% 증가된 것으로 집계된다.

높은 가격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 증가였지만 높은 사료 가격 때문에 육계시장에서 심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2월의 생산비용은 재작년보다 kg당 평균 20원 높아진 반면 도매 가격은 평균 100원이 높았다. 금년(1997년)상반기의 사료 가격은 현재 수준 보다 낮

게 하락이 지속되고 1년전 1월보다도 떨어질 전망이다.

ERS는 1997년 1/4분기동안 생산은 작년 7.5%의 증가에 비하면 약간 늘어난 4~5%의 증가를 기대하고 이에 따라 생산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kg당 1,111원의 도매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일 미국 육계업체가 다른 나라의 예상하지 못한 고객으로 부터의 다리 사분체 주문에 많이 의존한다면 1996년의 급격한 수급 불균형이 재현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1996년의 악명 높은 두 사건 때문에 미국내의 가격이 극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로, 러시아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생산과 운반 그리고 저장 과정과 시설물을 3개월간 검사할 때까지 미국산 육계 다리 사분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계속 수출은 2월의 94만톤에서 3월의 75만톤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2월중 미국 북동부의 다리 사분체 가격은 kg당 794원이상에서 kg당 615원으로 감소했었는데 이는 6월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12월 구 소련연방에 대한 다리 사분체 선적 가격이 다시 출렁거렸는데, 이런 사건은 생산과 판매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한다. 매달 평균 북동부의 다리 사분체 가격은 3월과

4월의 kg당 615원에서 10월에는 kg당 913원으로 298원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 다리에 대한 가격 차이는 198원이었고 통닭 가격은 2월의 kg당 853원에서 11월에는 약 1,171원으로 318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렇게 심한 가격의 변동을 수용하거나 장기간 계약으로 연장함으로써 가격 변동의 폭을 감소시켜야 하며, 또다른 전략으로는 좀더 많은 제품을 좀더 안정된 지역으로 판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계속 수출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계속의 미국내 수요는 증가될 것이고 가격도 상당히 좋을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의 1997년 1월 사료 곡물균형표(Feed Grain Balance Tables)에 의하면 유량종자(油糧種子, oilseed)공급은 매우 여유가 없는 반면 사료용 곡물과 밀 공급은 전에 기대했던 수준의 유지가 예상된다. 세계적인 사료용 곡물의 소비 증가는 1996년 말경의 극히 낮은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금년 가을 재고를 감소시키고 있다. 사료 원료값은 가격에 예민한 대두박(soybean meal)값과 같이 작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2월부터 7월까지의 예상 옥수수 가격은 bushel 당 2.74 \$이고 작년 같은 기간에는 4.46 \$였다.

2월부터 7월까지의 예상 대두박(soybean meal)가격은 M/T당 245 \$이고 작년 같은 기간에는 240 \$였다.

(주)영육농산 본사 용인으로 이전

(주)영육농산의 서울본사가 지난 3월 30일자로 용인으로 이전하였다.

서울에는 영업부와 외식사업부가 남게되었고 그외 모든 부서가 이전하였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637-1
- 전화:(0335)37-2033~5, 35-0688
- 팩스:(0335)35-0342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

국내 닭고기 외식업체 브랜드 역수출

-국내 영업노하우 바탕 해외시장 진출 늘어-

해외브랜드를 도입한 국내 업체들이 우리나라 상표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 또는 현재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이른바 브랜드 역수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4년 롯데리아의 시작으로 올 10월에 TS해마로의 파파이스가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롯데리아는 국내에 도입된 해외브랜드 중 처음으로 일본롯데리아가 40%, 한국롯데리아가 40%, 중국측 20%로 합작법인을 설립, 지난 94년 11월에 북경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역수출을 시도했다.

이러 TS해마로의 파파이스도 美본사 AFC사로부터 한국 파파이스 상호로 중국시장에 진출 오는 10월 북경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패밀리 브랜드 스카이라크와 우노,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라빈스가 아시아 지역 판권을 본사로부터 획득해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중에 있다.

국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좁은 국내 시장의 높은 경쟁에서 탈피해 해외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치로 캐나다측 입장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2명의 캐나다인과 2명의 미국인 그리고 위원장은 영국 캠브리지대학의교수인 Eilhu Lauterpa-cht로 구성되었다.

수입닭고기 가공용 사용증

수입닭고기를 원료육으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일부 외식업체들의 냉동 수입육 사용증가로 국산 가공닭고기 원료육 공급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입닭고기를 원료육으로 가공판매시 국산 육계소비시장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산 닭고기의 생산기반 자체를 와해 시킬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M사와 Y사등 중소기업도 외식업체들이 국내에서 인기 있는 다리나 날개 등 일부분에 대해 소량을 가공육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닭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 계육 생산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량의 수입육을 원료육으로 가공품을 생산·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입육인 다리나 날개등 특정 부분육을 국내 외식시장에서 가공해 판매해도 소비자들이 국내육과 구분이 어렵고 맛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입닭고기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수입육에 대한 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닭고기 가공업체의 관계자는 "값싼 수입 냉동닭고기를 사용해 가공육으로 판매하는 외식업체들의 증가로 인해 국내 가공용 납품닭고기 가격인하는 어쩔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결국 국내 생산비가 높은 상태에서 국내육을 가공용으로 납품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영향은 국내 육계 농가와 계열주체들의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96년도 냉동닭고기 1만여톤 수입

지난해 수입된 MMA물량 냉동닭고기는 1만96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8천1백24톤, 중국에서 1천6백37톤, 태국에서 2백94톤, 캐나다에서 40톤이 수입되었다.

이와같이 미국산 냉동 닭고기가 전체 수입물량의 80%이상 차지하는 원인은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입물량의 국가별 평균가격은 미국 1.525\$, 중국 2.82\$, 캐나다 1.439\$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캐나다산 분량은 전량 닭다리로 밝혀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량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미절단육이 미국에서 4백10톤과 태국에서 1백7톤 등 총 5백17톤으로 전체물량의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량중 부분육은 닭다리가 6천8백85톤, 날개부분이 1천5백88톤, 가슴부위가 7백76톤 기타 3백19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에 해외에서 수입된 가공육은 총 3만7천9백여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미국이 61.3%인 2

만3천2백56톤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25%인 9천5백톤, 프랑스가 11.2%인 4천2백60톤을 차지했다. 그 외에 태국이 1.4%인 5백37톤, 캐나다가 0.6%인 2백45톤, 영국이 0.3%인 1백16톤을 각각 우리나라에 수출하였다. 전년대비 수입량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나 중국과 태국에서 각각 2배 가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6%의 증가를 보였다.

NAFTA, 캐나다 높은 관세 허용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는 특정 미국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세 유지를 허용했다.

높은 세금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가공육, 계란, 낙농제품, 마가린(margarine)그리고 보리 등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캐나다측에서 처음 알려진 다음 미국에서는 지난 7월 15일 이후 알려졌지만 최종 판정은 지난 11월 하순에 공개되었다.

다섯명의 NAFTA위원은 만장일

삼계탕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

-한국전통식품으로 독특한 맛 우수성 호평-

우리의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유럽시장에 선보인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 삼계탕에 대해 수입규제를 해왔던 네덜란드가 이달부터 수입을 허가한 데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도 오는 5월부터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어서 삼계탕이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또 싱가포르도 수입을 허가키로 해 삼계탕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고유식품인 삼계탕은 지난 92년부터 국제식품박람회 출품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독특한 맛과 우수성으로 호평을 받아 홍콩과 일본, 대만, 호주등 상당수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은 국제적으로 독특한 상품이고, 유럽내 수입통관 실적이 없으며, 제품의 가공방법과 성분·효능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입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삼계탕에 대한 가공절차와 성분분석 등 검역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공하고 해당국가 검역관을 한국에 초청, 현지 가공공장 실사를 통해 수입검역 규제 해제 노력을 벌인 결과 네덜란드는 3월, 싱가포르는 4월, 유럽의 다른국가들은 5월부터 수입을 허가키로 했다는 것이다.

유통공사는 또 오는 4월부터 싱가포르에 본격 수출되는 삼계탕 통조림 84만캔(2백77만2천달러어치)에 대해서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성분 변경을 했으며 유럽지역에 수출할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통공사는 동남아와 유럽시장에 삼계탕을 정착시킨 후 곧이어 미국지역에도 수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물량은 96년에 총 159,489kg 71만9천달러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체별로 보면 (주)화인코리아

가 70,863kg으로 31만1천4백달러어치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했으며, (주)하림은 39,746kg 15만9천달러이며, 미원마니커(주)가 152,150kg 2만6천4백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외의 업체로 금토일식품이 19,600kg 8만6천8백달러이며, 대봉인터내셔날은 2,880kg 9천달러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유럽과 싱가포르에서 수입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수출이 본격화 되어, 김치 등과 함께 한국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3차 생산책임자회의 미원마니커에서 주관

본회 97년 3차 생산책임자회의가 미원마니커(주) 주관으로 지난 3월 19일(수)에 미원마니커(주) 동두천 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례회의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 본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로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회원사간 서로 다른 위탁사육 계약서에 따른 부작용을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로 육계 계약사육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의견이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되어 각 사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사육 계약서를 가지고 1차 토의가 있었다.

임시회의에서는 정관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사육비 지급부분에서는 각 사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준이 회원사별, 회원사 거래처별, 거래물량별로

차이가 있어 서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며 각사별로 자세히 검토한 후 다시 토의키로 하였다.

이번 3차 회의의 진행은 우선 미원에서 자사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94년 당시 '천호마니커'로부터 인수한 후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올 97년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안건 토의에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거론되었던 표준계약서문제를 위주로 검토하였는데 정관부분에서 한두가지 항목에 대한 최종 수정을 하였고, 사육비 부분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 졌으나, 결론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본회주최, 닭고기 위생 및 도계검사 교육 실시

4월 9일부터 24일까지 닭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위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USDA도계검사원 어형선 박사를 초청해 실시하는데 농림부에서 후원한다. 교육대상은 시·군 축산관계관 및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관, 도계장 경영자 및 생산책임자, 자체검사원, 유통상인, 대리점주 등이다.

위생교육은 4월 14일, 16일에 각

각 실시하며 도계검사 현장실습은 4월 9일(수) 미원마니커(동두천), 10일(목) 한일농원(수원), 11일(금) 영육농산(용인), 15일(화) 체리부로 식품(진천), 17일(목) 하림(익산), 18일(금) 동우(군산), 21일(월) 대연식품(용인), 23일(수) 화인코리아(나주), 24일(목) TS해마로 식품(부여)에서 각각 실시하며, 도계장 자체검사원이나 실습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지난 4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97년도 제6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문제, 4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도계위생검사 현장지도 및 세미나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였다. 세미나는 4월 14일(서울 축산회관), 16일(유성리베라호텔)에 각각 개최된다.

또한 닭고기 운반상자 임대 활용 문제에 대해 각사별로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BBQ, 제2브랜드 준비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 사업체인 (주)제너시스의 BBQ가 제2브랜드를 오는 5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상호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메뉴는 기존의 BBQ와는 다르게 하여 한식을 주제로 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주로 삼계탕, 닭죽, 닭찜 등 고유의 전통 한식을 특별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패스트푸드와의 차별화로 사업다각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내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2브랜드 체인본부에서 쓰여질 닭은 전량 미원마니커(주)에서 도계, 가공된 위생닭을 사용하게 된다.

닭고기 수입개방 대처에 대한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수입개방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주)일본양계산업연구소 사장 오구무라 요시미 씨가 일본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대한수의사회 박근식 부회장(본회 고문)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육계의 경우 100% 계약농가에 의해 생산이 되며 대부분 연간계약을 하여 생산한다.

따라서 입추·출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며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통계자료에 의한 예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일본은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소비량의 증가만큼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조금씩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이 개방될 경우 우선은 생산원가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적응기간이 지나면 가격의 등락폭이 안정될 것이고 적절한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도 우리나라와 기호도가 비슷하여 가슴살 보다는 다리를 선호하여 가슴살에 비해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96 3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증원농장

영업부 TEL (0417)567-7792, FAX (0417)554-0771

본회 홍보비 협조 활발

본회의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이의 효과가 서서히 거양됨에 따라 업계에서 '97닭고기 소비촉진 홍보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97.3.31. 현재 본회에 홍보비를 협조해준 업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하림	16,560,000원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	1,000,000원
(주)증원농장	1,000,000원
(주)신기	1,000,000원
(주)대연식품	6,000,000원
(주)우연산업	3,000,000원
(주)화인코리아	3,000,000원
계	31,560,000원